



3면

한-카자흐 정상회담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8월 18일 수요일 (음 7월 11일) 제284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코로나19 상황 속 국내 식품기업들 투자 잇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 '활기'

냉동식품 전문 천일식품 건강 전문 K스마트코리아 전북도·익산시와 투자협약



전북도는 냉동식품 전문기업 천일식품(주)과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K스마트코리아(주)와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잠재에도 불구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식품산업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전북도는 냉동식품 전문기업 천일식품(주)과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K스마트코리아(주)와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에만 16개사가 분양계약 완료했고, 2021년 7월 기준 국내의 식품기업 106개사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터 잡고 있다. 이번엔 입주 계약을 체결한 천일식품(주)은 1974년 설립해 국내 최초로 교자만두와 냉동볶음밥 인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냉동식품 전문기업으로 현재 인건공장과 홍성공장에서 밥류·육가공류·수산물류·면류 냉동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번 계약 체결로 천일식품(주)은 총 6만574㎡(1만8,323평) 부지에 452억 원을 투입해 5G 기술을 활용한 HMR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K스마트코리아(주)는 2020년에 설립한 창업기업으로, 한국의과학연구원, 유바이오로직과 기술협력을 통해 전통 발효식품으로부터 균주를 분리해 개발한 유인균을 다양 보유하고 있으며, 총 3만4,909㎡(1만1,660평) 부지에 360억 원을 투입, 100명의 인원을 고용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여파 및 1인 가구의 증가와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미코노미(ME + ECONOMY, 나를 위한 경제활동) 등, 혼밥·혼술 등의 트렌드에 따라 가정간편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천일식품(주)과 K스마트코리아(주)의 눈부신 성장에 기대된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천일식품(주)과 K스마트코리아(주)가 변화하는 식품산업 트렌드에 걸맞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Food 대표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원한다"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글로벌 식품시장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내 유일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로서 아시아 그린바이오 허브 조성의 최전방 전략 거점이다. /유호상 기자

2022학년도 대입 수능 원서접수 내일 시작

도교육청, 내달 3일까지... 출신 고교·교육지원청서

2022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8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 12일 간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본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졸업자(검정고시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환자, 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자 및 확진자 등은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해야 한다. 다만 원서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때:

군산 거주 / 전주 소재 고등학교 졸업) 경우 또는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시/군)일 경우(예: 전주 거주 / 무주 소재 고등학교),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 가능하다.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학력 인정자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면 된다. 도내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은 6곳이며, 관할지역은 ▲전주교육지원청-전주, 완주, 진안, 무주 ▲군산교육지원청-군산 ▲익산교육지원청-익산 ▲정읍교육지원청-정읍, 고창 ▲남원교육지원청-남원, 임실, 순창, 장수 ▲김제교육지원청-김제, 부안이다.

수능 원서접수 시 지원자는 응시수료 신분증 여권용 규격 사진 2매를 준비하고, 시간장에·청각장애·뇌병변 및 운동장애 등 시험편의제공 대상 학생은 전주교육지원청에 방문 접수한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해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 총 1만7,156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했으며, 올해도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 시험지구별 원서접수 관련 문은 전주 270-6081, 군산 450-2641, 익산 850-8880, 정읍 530-3020, 남원 620-7831, 김제 540-2571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원서 접수처 방역 관리를 위해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 체크, 거리 확보 등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접수처 방역 실시 및 접촉물품 수시 소독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장은성 기자

올 5월 기준 도내 소상공인 사업체 9만106곳

전년대비 4.76% 증가... 통신판매업 1731개 ↑

코로나19가 지속되던 전북도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전북도 지역통계 인포그래픽스"를 통해 2021년 5월 기준 전북도 100대 생활업종 사업체수는 9만106개로 전년동월 대비 4.76% 증가했다고 17일 발표했다. 100대 생활업종은 주로 소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최종 소비자를 대상인 사업체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전북도 지역통계 인포그래픽스"를 통해 2021년 5월 기준 전북도 100대 생활업종 사업체수는 9만106개로 전년동월 대비 4.76% 증가했다고 17일 발표했다. 100대 생활업종은 주로 소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품목(음역)을 판매·취급하는 업종으로 국제청이 매일 발표하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한식전문점(1만4,866개), 통신판매점(7,429개), 미용실(4,092개) 등의 순으로 사업자 수가 많고, 상위 10대 업종이 100대 생활업종의 절반 이상(51%)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통신판매업으로 전년동월대비 1,731개가 증가했고, 한식전문점, 커피음료점, 피부관리업 등으로 증가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은 전년동월대비 206개 감소한 호프전문점이며, 옷가게, 간이주점, 구내식당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00대 생활업종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완주군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고, 남원, 무주 등 주요 관광지 지역의 경우 '펜션·게스트하우스'가 비교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호상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은 강동화 의장, 김은영 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전주시의원들과 함께 17일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쿵20' 서비스 가입을 마친 뒤 전주시립도서관 회원증을 지참하고 동네책방 '물결서사'를 방문해 '책쿵20'을 체험했다.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쿵20' 본격 시행

지역서점에서 책 구입시 도서가격 20% 포인트 지급 김승수 시장 등 체험 나서

전주시민들은 앞으로 12개 시립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본 뒤 반납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적립된다. 또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입할 경우에도 도서가격의 20%가 포인트로 지급되고 즉시 책값을 할인받을 수 있다.

전주시는 17일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쿵20'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강동화 의장, 김은영 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전주시의원들과 함께 시행 첫날인 이날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쿵20' 서비스 가입을 마친 뒤 전주시립도서관 회원증을 지참하고 동네책방 '물결서사'를 방문해 '책쿵20'을 체험했다.

전주시민들은 '책쿵20'에 가입하면 32곳의 참여서점에서 단행본 도서를 구매한 경우 정가의 20%를 포인트(1포인트=1원)로 지급받을 수 있다. 12개 시립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를 반납할 때에는 1권당 50포인트를 적립받게 된다. 이렇게 지급된 포인트는 참여서점에서 단행본 도서를 구매할 시 사용에 환입받을 수 있다. 포인트 지급 한도는 월 5만 포인트로, 도서를 당일 반납한 경우나 연체도서의 경우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으며, 참고서나 문제집, 잡지, 전집 등을 구매할 시에는 포인트 사용이 제한된다.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쿵20' 서비스에 가입을 원하거나 32곳의 참여서점에 대한 확인은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jonju.gov.kr)에서 가능하다. 시는 이번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쿵20'을 통해 도서관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책을 더 가까이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책 읽는 문화가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서점이나 대형 서점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려 어려움을 겪던 지역서점이 다시 활력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 32곳의 지역서점 관계자와 함께 성공적인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쿵20'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승수 시장은 "도서관과 지역서점, 시민이 함께하는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쿵20'은 건강한 독서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서점을 살리기 위해 마련한 책사랑 적립제도"라며 "책을 통해 삶을 바꾸고, 삶이 다시 책이 되는 도시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업명에 포함된 '책쿵20'은 책사랑포인트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책의 매력에 '심쿵'함으로써 '전주'가 책과 사랑에 빠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주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